

일찍이 나라와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번고
를 당하던 왕이나 목민관은 하늘 아래 없도록
두사지의 예를 다해 천심과 민심을 달랬다.

올해도 장마철과 태풍 내습이 맞물려 전국로
가 소위 '물폭탄'을 맞아 인명피해가 심대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되어, 수만명의 이재민은
살 의욕마저 놓아버릴 지경으로 기진맥진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복구 지원
의 손길을 애타게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
서 여기저기 지원과 격려의 미담이 전개되고
기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도저히 양식 있는 인간의 행
위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망발의 소행들이 있다.
참으로 같은 하늘 아래 더불어 숨 쉬고 살아가
기 민망한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국정을 대신해
서 잘 처리해달라고 맡긴 금액제를 단 국회의원
이 무리로 짝을 지어 극심한 수해지구 근방의 팔
프장에서 '굿 샷'을 외치며 골프놀이를 했다는
사실은 차마 믿기조차 아니하는 수준이다.

딱히 이 한 건만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어느 지자체의 장이라는 목민관은 그 관
에 읍주거부의 유흥행각을 했는가 하면, 외우의
길을 나선 경우도 있다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결코 이 건으로 해서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해
공격하고자 하는 정파적 의도는 없다. 다만 이와



불자 세상보기

최 순 열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

'기본'도 못지키는 사람들

유사한 사례들이 작금에 걸쳐 끊임없이 벌어져
왔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인사들이 그 동안 보여
온 절면조 풍무니 같은 역겨운 위선과 부정한 비
행이 이제나저제나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순박
한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열불이 나는 것이다.

이미 전직 국무총리가 3·1절 골프투 낙마를
하고, 출입기자와의 회식자리에서의 성추행 사건
의 시비에 휘말려 있는 선량, 일개 법조 브로커의
수뢰명단에 줄줄이 엮인 전현직 법조인 간부, 지
방 도로세력 조폭들과 동석하여 호형호제한 지방

관사들, 마침 교육부총리가 되겠다는 인사가 논
문의 이종 제출이나 제자 논문외 임의 재방 시비
에 말려들고 있는 일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그럴싸한 외래
어를 써가면서 한바탕 질타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 손쉬운 말로 소귀에 경 읽기가
아닌가. 아니, 이런 비유는 소가 들으면 화를 낼
일이다. 돈이든 권력이든 사회적 존경이든 아쉬
운 것 없이 많은 대중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지도층들이 당연히 행하고 지켜야 할
영광된 사회적 책무를 왜 소홀히 하는지, 그리하

여 마침내 스스로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
리석음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 그 위치에
도달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갈 길이 없다.

왜 앞장 서 본을 보이며 선도로 나아가 할 인
사들이 먼저 탐욕과 부질없는 세속의 영욕과 재
화에 눈이 멀어 자기본분을 내팽개치고 결국 대
중의 지탄을 온몸에 받는 우를 범하고 말까. 사
회지도층 인사들의 청렴의 미덕을 기대하기보
다 더 이상 추악한 위선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
는 무지와 파렴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백
성들이 참으로 안쓰른다.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은 자기 분수에 맞게
몸과 마음의 안락과 화평을 유지하며 이 세상천
지의 만물과 더불어 생명을 공유하는 일이 아닐
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복록을 남아서면서까지
무리하게 추구하여 남의 삶을 위축시키고 피해
하게 하는 탐욕의 삶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크나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당연히 숭선수범하여 이 사회의 선도
와 모범으로 서야할 위인들이 후안무치하게 목
불인견의 비행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되풀이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다움의 품위와 자존
을 지키는 일이 지난한 것임을 알겠다. 우리 모
두 새삼 세속오계의 준엄한 가르침을 자기 경책
의 죽비소리로 삼아 가슴을 씻어내자.

불자의 눈

은설위원 기명사설

요즘을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불교계의 핫 이슈는 단연 '문
화재의 반향'이다.
일본 도쿄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왕조실록을 환수하
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삼성박물관 리움에 소장된 현등사
사리기 반환 소송, 백양사 아미타회상도 반환 문제까지 꼬리를
물고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무
사히 돌려받았지만, 어디에 소장하느냐의 문제가 새로운 논
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등사 사리기는 법원에서 현재의 현등
사와 원래의 현등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삼성박물관
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백양사 아미타회상도는 원 소유자인 백양사와 현
소장자인 불교미술관 간의 갈등 양상을 보였으나, 다행히 불
교미술관에서 기증하기로 양보함으로써 지난 7월 14일 백양
사로 돌아갔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성보문화재는 고향을 떠나 박물관,
개인의 집, 그리고 외국에까지 팔팔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일까지 빈번하게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중창'이란 불도저
앞에 오랜 세월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문화유산이 한순간에
갯더미가 되는 슬픔도 목격해야 했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던 시절의 안타까운 현실이었
다. 그러나 이제는 인식이 확 달라져 가고 있다. 사찰마다 앞
을 닦아 성보박물관을 짓고, 올해에는 불교중앙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집을 떠난 성보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움직임은 불교
계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다.
성보문화재는 불교의 아름다운 역사이다. 오랜 역사가 빛
나고, 풍부한 내용이 화려하며, 그 예술세계가 무엇보다 독특
하다. 기와 조각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인
것이다. 흩어진 것은 모이고, 해진 곳은 붙이며, 빠진 곳은 채
우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 불기 시작한 성보
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불교의 찬란한 역사를 가꾸어
나갈 청신호임에 틀림없다.
정병모(경주대 문화재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전쟁과 증오

코살라국의 파사의왕이 마가다국의 아사세왕과의 전쟁에
서 패하자 사위성으로 피신했다. 결식을 나온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싸움에 이기면 원수가
늘고 싸움에 진 괴로움은 잠자리도 불편하다. 이기고 짐을
들 더 버리면 누누나 깨나 형상 마음 평온하리라"

전쟁은 야만이다.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보름
을 넘기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당초 정치단체
인 헤즈볼라에 의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병사 2명의 구출하
겠다는 12일부터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
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포로 구출이 목적이 아니라 레바
논 침공이 실제 목적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사망자만 400명을 훌쩍 넘어가고 있고 그 피해는 갈
수록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만 200명이 넘는
다한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한 참상과
팔다리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
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세상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국제적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헤
즈볼라가 와해될 때까지 점령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
제사회가 이탈리아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국제회의를 열
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 탓에 평화유지군의
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레바논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 뻔하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죄 없는 민간인과 아이들을 참혹하
게 살상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저지르고
있는 더러운 '야만'은 이제 멈춰야 한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고통속에
신음하는 레바논 국민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 그들
을 원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열린마당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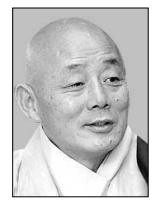
대립·갈등 푸는 열쇠 '추대제'
추천 받아 등록·선관위 심사·추대회의 '만장일치'

현 총무원장 선거제는 공약과 정책 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선거비용을 필요로 하며, 이는 자칫 금품살포
등의 매패행위로 이어져 종단의 위신을 떨칠하는 경우가 많
다. 선거 때마다 표를 사고파는 모습은 몸을 파는 것과 다르
지 않다.

지난 중앙종회의원 연수에서 제안한 '추대제'는 종단의 주
요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종단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수반
에 적합하고 능통한 적임자를 대상으로 종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총무원장 선거인단과
같이 중앙종회의원, 각 교구본사 주지, 각 교구총회에서 선발
한 9인의 위원 등으로 추대회의를 구성한다. 이어 교구본사 주
지 5인 이상, 중앙종회의원 20인 이상, 교구추대위원 30인 이
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관위가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가 1인이면 곧바로 추대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총무원장을 추대한다. 단 2인 이상일 경우 추대회
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
을 채택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추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종정
예하의 추천행성 등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추대제를 현실화시키
으로써 추대과정에서 상호간의 세 대결 양상
을 보이지 않게 되므로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
간의 대립이 완화될 것이며 선거의 승·패자
사이에 나타나는 균열과 대립을 지양할 수 있
을 것이다.
명진(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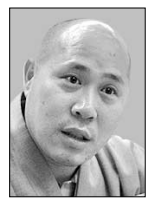
종도지사 직접 수렴하는 '직선제'
시간·비용 절감, 선거과정 혼란도 막을 수 있어

1994년 종단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종도중심의 종헌준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선거법은 종단민주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
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타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
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선거법을 보완하고
이전의 폐단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직선제를 제시하고
싶다.

직선제는 종도의 의사를 직접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과정
에 나타난 각종 부정선거,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현행 간선제는 1차 선거인단 선거와 2차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는데 반해, 직선제는 1회 선거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
고 선거과정의 혼란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정승합 이상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경우 종도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말하기 어렵고, 비구 비구니 승합의 승합을
차별할 경우 비구니 참정권의 제한 시비, 교구별 지역별 투표소
설치 및 선거관리역 확보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는 반드시 점
검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종헌준법개정기초위원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의 50.2%가 승합 20인 이상의 승합들을 대상
으로 하는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이 가운데 70.2%는 비구 비구니의 차
별 없이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조
계종도 총무원장 선거에 직선제를 검토해야
할 때다.
장정(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벽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케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덕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생활속의 수행
부산법기불교대학 제9기 모집
불교 수행단계와 수행방법을 실습과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법기불교대학이 다음과 같이 개강합니다.
개강: (A)2006년 8월 24일(목요일)(저녁 07:00-09:00)
(주)2006년 8월 25일(금요일)(오전 10:00-12:00)
접수 및 문의: 부산법기선원(051-516-9104) www.bubkisa.or.kr
수강료: 총 80,000원(교재비 포함)
차별 강 의 일 정 비 고
1강 불교란 무엇인가? 예불의식, 불자예절 108배
2강 중생의 마음 - 무기심과 번뇌심 자기소개
3강 수행방법 - 관법(결단관, 호흡관, 설파관) 염법 실수행(좌선과 행선)
4강 불교교리 - 4성제 8정도, 3법인, 5온, 연기법 수행문답
5강 신행-오차수행 사찰의 장엄
6강 초발심자경문 호흡점점
7강 칠야정진, 상기의 극복(멜로디) 선배의 수행경험담, 지식회화와 반지식회화
8강 삼매와 삼매관성, 수행과 업장소멸 도반의 수행담
9강 수행자의 자세와 건강관리 호흡점점
10강 수행단계와 수행방법 실수행(좌선과 행선)
11강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무념과 반야, 삼신불 이근관, 이근관
12강 불사활동
13강 보현행원품-끝없는 대승보살의 서원 멜로디연습
14강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비교분석-소승, 대승, 최상승 설문조사, 발원
15강 수륙식, 선지식 법문
* 주,야간 중복수강도 가능합니다. * 서울법기불교대학 일정은 서울선원(02-854-18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선원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남산동역 7번출구 → 육교지나 → 20m직진 → 왼쪽 청룡빌딩 4층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기선원